



# 야외 공공시설 개방 방역 사각지대 우려

### 도, 지난달 27일부터 일부 야외 시설 개방 조치 코로나19 재확산 속 감염 우려 목소리 높아져 “이용자 감시 한계... 스스로 위생수칙 준수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4일 예정이던 공공시설의 개방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이유로 2주 연장한 가운데 일부 실외 공공시설은 부분 개방이 이뤄지고 있어 감염병 예방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는 실외 공공시설 이용 시 최소인원으로 입장을 제한했지만, 최소인원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등 실외 공공시설이 방역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인조잔디 구장 내에는 40여명의 중장년층들이 모여 축구를 즐기고 있

었다. 이들은 땀을 흘리고 몸을 부딪치며 축구경기를 이어갔다. 같은날 찾은 노형동 소재 소공원 내에 조성된 공공체육시설에서도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등 생활속 거리두기를 무색케 했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제주를 다녀간 단체 여행객이 군포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잇따라 받은 이후 첫 주말이었지만, 실외 공공시설에서는 체육 활동이 이뤄졌다.

도내 조기축구 소속 회원 A씨는 “사전 예약을 통해 실외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실외 공공시설이 개방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임모(33)씨는 “최근 도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실외 공공시설이 개방되면서 불특정 다수가 아무렇게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지역감염 우려에 따라 공공시설 개방을 연기한다 해놓고 일부 실외 공공시설은 개방하는 등 도의 방역 관리 지침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실외체육시설(제주시 32곳, 서귀포시 27곳)과 엘리트 체육선수에 한해

실내체육시설 4곳은 사전예약제로 부분 개방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실외 공공시설 이용 시 최소인원으로 입장을 제한하고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등의 지침을 양 행정시에 전달했다.

그러나 최소 인원 제한 기준도 명확히 없을뿐더러, 인력 등의 한계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을 감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도심 외곽지의 실외 공공시설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이용객들을 모두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최소인원 제한 등을 이용객들에게 당부하고, 모니터링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위생수칙을 준수하려는 시민들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코로나 뚫고... 제주4·3 교원 연수 기지개

### 3년 미만 교사 위주 진행 전문가 동행 유적지 답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 하반기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4·3평화·인권교육 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연수가 아닌 소규모 단위 교사들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연수는 서귀북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36개 초·중·고등학교 및 4·3유적지에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3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 및 도외 출신 교사를 위주로 진행된다.

내용은 박찬식, 김창후, 허영선, 김은희, 오화선, 이동현 등 제

주4·3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강의와 함께 ▷학교 주변 4·3유적지 답사 ▷제주4·3평화공원 답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계 연수 등의 프로그램도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4·3평화·인권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줄 것”이라며 “또한 연수 결과를 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최대 60만원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학습지 수강료 등을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아·수학 등 교과목 학원 수강, 미술·음악·체육 등 예체능 과목,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 수강이 포함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사항



오설록에서 한 컷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오설록 녹차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제주의 신록을 만끽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만 1세 아이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실형

어린이집에서 만 한살짜리 원생을 학대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39·여)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신이 다니는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한살짜리 남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 그치지 않고, 재우기 위해 이불에 눌렀으나 계속 일어나려고 하자 뒤통수를

세계 누르고 머리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아들였다.

당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으로 교사들이 무척 예민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아동 보호를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만 한살짜리 아동에 대해 한 행동이 과격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혈세로 충당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10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3년 동안 ‘10% 이하’ 3년간 미납된 부담금 100억원... 도교육청이 대신 납부

제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 3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감사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감사의견서를 2일 발표했다. 의견서에는 사립학교의

저조한 법정부담금 납부율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가 자신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도내 10개 사립학교의 연도별 법정부담금을 보면 2017년 36억5798만원, 2018년 38억373만원, 2019년

(가결산 기준) 38억1686만원이다. 반면 이들이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2017년 3억5427만원(9.7%), 2018년 3억44만원(7.9%), 2019년(가결산 기준) 2억3687만원(6.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제주도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존’을 명목으로 사립학교 대신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액수는 2017년 33억371만원, 2018년 35억329만원, 2019년(가결산 기준) 35억7999만원 등 최근 3년간 100억원이 넘는 혈세

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결산감사위원회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감소 등으로 납부율이 감소해 사립학교 납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사립학교가 부담하지 못하는 몫을 제주도교육청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결산감사위원회는 일부 업체에 편중된 계약을 실시한 서귀포시 A여고(11건 중 6건), 제주시 B여고(6건 중 4건)에 대해 ‘수익계약 투명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오등봉 등 개발 중단하라”

## “공항공사 용역 중단하라”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지지부진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강다혜기자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가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나선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제주도,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참여하는 ‘제2공항 쟁점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뒤에서는 제2공항 기정사실화를 강요하는 기만적인 용역을 다시 발주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뒤에서는 주민과의 협의 없이 비밀리에 용역을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다혜기자

심의번호 2007-GN1-26-0155

#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대표 **임장완**

###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 그랜드보청기

가정의달 보청기 파격대할인

## 보청기전 브랜드 50~60%대할인!!

샵출들 훈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수다!

###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

제주시 서귀포시 전지역 방문 관리 서비스

보청기 모든 제품 보상판매 서비스

※ 세계금연기념 청각장애 및 흡연자 이신분들  
금연카드 무료로 가정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금연파이프, 사탕, 가리근, 구취제거제, 은단, 비타민C)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야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 Gen Tec Parasol

###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특별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뒤어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